피카소·세잔·렘브란트… 스크린서 만나는 예술가들

광주시립미술관 하정웅미술관이 '해설이 있는 예술영화' 2024년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올해로 9년째를 맞이하는 이 프로그램은 영화를 통해 미술가의 삶과 그들의 치열한 예술혼을 만나보는 자리다.

11월까지 '해설이 있는 예술영화'
하정웅미술관서 7개 작품 상영
조대영 영화평론가 해설 곁들여

오는 11월까지 7회에 걸쳐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오후 2시 하정웅미술관 2층에서 상영회를 연다.

올해 만나게 될 예술가는 고흐, 베르메르, 렘브란트, 모딜리아니, 피카소 등 대중들에게 친숙한 예술가들이다. 그들의 인생유전과 작품세계를 영화로 만나볼 수 있다.

27일 상영된 영화 '반 고흐'는 '인간' 자체적인 고흐에 주목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고흐가 권총 자살로 생을 마감하기까지 두 달여 동안 살았던 프랑스 오베르 지방에서의 삶을 냉정한 시선으로 구현하고 있다. 영화 속 고흐(자크 뒤트롱)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해 주변 사람들과 불화하는 범부로 묘사된다. 모리스 피알라 감독이 연출한 이 영화는 프랑스 영화비평지인 '카이에 뒤 시네마' 가 선정한 1991년 최고의 영화이기도 하다.

다음달 25일에는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와 함께한다. 요하네스 베르메르는 현재 확인된 그림이 35점에 불과하지만, 밝고 깊은 색채와 정밀한 구도로 널리 사랑받는 화가다. 그의 그림 중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는 이례적으로 얼굴만 클로즈업한 그림이다. 소설가 트레이시 슈발리에는 이에 착안해 화가와 모델(하녀)의 이룰 수 없는 사랑을 상상했고, 이를 원작으로 한 영화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는 베르메르의 그림을 연상시킬 만큼 촬영이 일품이다.

5월29일에는 영화 '르누아르'를 만난다. 1차세계대전 무렵 프랑스 리비에라 지방의 여름날을 배경으로, 화가 오귀스트 르누아르와 모델 '데데' 그리고 후에 아버지 못지않은 명성을 얻은 아들 장 르누아르를 중심으로 그들의 예술과 인생이 펼쳐진다.

이어 모딜리아니(6월26일), 렘브란트(8월28일), 세잔(9월25일), 피카소(10월30일)가 등장하는 영화를 차례로 만날 예정이다.

매 상영회에는 지역 대표 영화평론가 조대영 씨가 강연자로 나서 청중과 소통하며 미술가와 영화의 이해를 돕는다. 프로그램은 무료이며, 참가자 접수는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상영작 및 접수 문의 062-613-5390.

김준기 광주시립미술관장은 "미술의 언어가 영화 속에서 새롭게 구현됨을 확인하고 두 예술 장르의 아름다움을 함께 향유하는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미술과 영화에 관심 있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1. 반 고흐
2.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3. 르누아르
4. 나의 위대한 친구 세잔 스틸컷

광주비엔날레

'다양성, 공동체 연대'… 올해 파빌리온 어떻게 구성되나

30여개 국가, 광주 리서치 바탕 동시대 담론 형성

제15회 광주비엔날레 파빌리온 전시 윤곽이 나왔다.

올해 30주년을 맞이하는 광주비엔날레는 광주 전역에서 다양한 문화권의 현대미술을 소개하는 '광주비엔날레 파빌리온'을 확대 개최한다.

이번 파빌리온 전시에는 30여 개 국가가 참여해 지역 국·공립미술관, 예술 단체, 대안공간, 독립기획자들과 함께 여러 층위의 동시대 미술을 광주와 연결한다.

본전시와는 달리 공통 주제를 선정하지 않고, 해당 파빌리온의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 각자의 주제를 펼쳐 보일 예정이다.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미얀마 등을 비롯한 아세안 국가와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르헨티나,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독일, 이스라엘, 이탈리아, 네덜란드, 페루, 폴란드, 스웨덴, 영국, 광주 등이 참여한다. 이외에도 참여를 희망하는 국가, 도시, 기관들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각국 참여자들은 광주에서의 리서치를 통해 현지 예술가, 전문가들과 협력해 전시를 준비하며 광주 기관과 국외 기관 간 교류를 촉진하고 있다.

특히 일본 파빌리온은 지난달 국립5·18민주묘지를 비롯해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오월어머니집 등을 방문해 광주 지역 역사 연구를 기반으로 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오스트리아 파빌리온은 한국과 오스트리아 작가들의 협력 퍼포먼스를 통해 연대의 경험을 선사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참여하는 캐나다 파빌리온은 한국의 김설아 작가와 6명의 이누이트 작가 협력 전시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에 신설된 뉴질랜드 파빌리온에는 오클랜드에 위치한 테 투히 시립 공공 갤러리가 참여해 마오리 전통과 문화를 다루는 영상 작품을 전시한다.

카타르 파빌리온은 카타르국립박물관팀이 나서 오픈콜을 통해 선정 작가를 중심으로 중동지역 환경문제를 다룬다.

박양우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는 "광주비엔날레 파빌리온은 협력과 화합, 공동체의 상징으로서, 인류의 다양한 문화를 다룸으로써 동시대 사회 담론을 높여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프로코피예프·차이콥스키 음악의 정점을 만나다

내일 광주시향 정기연주회 'Klimax'

클라이맥스(Klimax·독일어)는 음악의 전개 과정에서 감동의 절정이 최고조에 이르는 순간을 뜻한다.

광주시립교향악단이 프로코피예프와 차이콥스키 곡으로 최고의 감동과 여운을 남기는 무대를 선사한다.

오는 29일 오후 7시30분 전남대 민주마루에서 펼쳐지는 382회 정기연주회 'Klimax'다.

이번 공연은 예술감독 홍석원의 지휘와 바이올리니스트 백주영(사진)의 협연으로 프로코피예프, 차이콥스키의 정점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곡들이 연주된다.

바이올리니스트 백주영은 시벨리우스, 파가니니, 퀸 엘리자베스, 롱티보 콩쿠르 등 세계적 콩쿠르에 입상하는 등 실력을 인정받은 연주자다. 2005년 최연소로 서울대 교수에 임용됐고,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전곡 앨범과 이자이 무반주 바이올린 소나타 전곡 앨범을 발매했다.

첫 무대는 '프로코피예프 바이올린 협주곡 2번 G단조'를 바이올리니스트 백주영의 협연으로 시작한다. 이 곡은 프로코피예프가 약 18년 간의 외국 망명 생활을 청산하고 러시아로의 귀환을 결심한 1935년 작곡됐다. 프로코피예프가 남긴 현악 협주곡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이 작품은 프랑스의 세련미와 러시아의 민속적 요소, 스페인의 이국적 정취를 고루 느낄 수 있는 곡으로 알려져 있다.

후반부는 '차이콥스키 교향곡 5번 E단조'로 꾸민다. 차이콥스키 교향곡 5번은 6번 '비창'과 함께 가장 널리 연주되는 작품이기도 하다. 비극과 숙명을 말하는 이 작품은 지난날을 회고하며 우울에 잠겨있지만 끝내 희망을 암시한다. /최명진 기자

제40회 무등미술대전 공모

내달 1일 접수…9개 분야

㈔광주·전남발전협의회가 전국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제40회 무등미술대전을 연다. 접수는 다음달 1일 하루만 받는다.

공모는 한국화·문인화·양화·수채화·판화·조각·공예(금속·도자·목칠·서각·섬유 및 기타)·서예(한글·한문·현대서예·캘리그라피)·사진 총 9개 분야에서 진행된다. 국적에 관계없이 누구나 출품할 수 있으며 순수 창작예술작품 및 국내외 미발표 작품이면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500만원이 수여되며 대상 8명에게는 각 500만원 상금이 지급된다. 특히 상금 50만원이었던 우수상은 올해 100만원으로 올라 총 23명에게 수여된다.

수상작 발표는 다음달 5일 광주·전남발전협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상식은 같은 달 1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수상작 전시는 4월18일부터 22일까지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에서 진행된다. /최명진 기자